

박채순 광주시청 여자양궁팀 감독 내년 리커브 국가대표 총감독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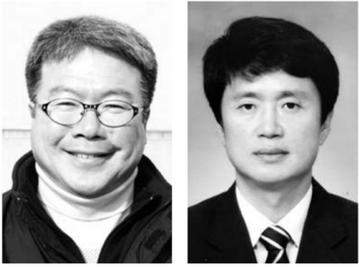
송철석 광주체고 감독은 코치로

박채순(55) 광주시청 여자양궁팀 감독이 2021년도 양궁 리커브 국가대표 총감독으로 선임됐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 4일 "신임 리커브 국가대표 지도자를 공개 모집해 새롭게 양궁 국가대표를 이끌 지도자로 박채순 총감독, 홍승진(청주시청 감독) 남자대표팀 감독, 정재현(대구 중구청 감독) 남자대표팀 코치, 류수정(계명대 감독) 여자대표팀 감독, 송철석(광주체고 감독) 여자대표팀 코치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대표 지도자는 전원 공모제로 선임했으며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박 총감독은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2003년부터 광주시청 감독을 맡아 기보배, 최미선, 이특영, 최민선, 김소연 등 우수선수들을 키워냈다.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대표팀 코치,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남자대표팀 감독을 맡아 양궁 전관왕의 신화를 일궈냈다.



박채순 감독



송철석 코치

박 총감독은 "한국 양궁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012 런던올림픽에 여자대표팀 코치로, 2016 리우올림픽에 남자대표팀 감독으로 함께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양궁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런던에서 장영실 총감독, 리우에서 문형철 총감독에게 보고 배운 지도철학을 녹여내 선수

들이 최상의 경기력으로 최고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계획"이라며 "선수들과 지도자라는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하며 '선수들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커브 남자부 감독에는 임동현, 김우진 등 정상급 선수를 배출한 홍승진 청주시청 감독이, 여자부 감독으로는 2010 광주아시안게임,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부를 이끈 류수정 감독이 재선임됐다.

남자부 코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인전 은메달리스트인 정재현 대구중구청 감독이, 여자부 코치는 떠오르는 신예 안산(광주여대)을 국가대표로 키워낸 송철석 광주체고 감독이 맡는다.

새 지도체제로 개편된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는 15일 진천선수촌에 입촌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거쳐 대표팀을 꾸리고 도쿄올림픽(7월), 세계선수권대회(9월), 아시아선수권대회(11월)를 향한 담금질을 시작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갑수 광주시 배구협회장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 출마

전갑수(60·사진) 광주시배구협회장이 6일 제7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배구 선수 출신인 전 회장은 이날 "최근 장애인 배구 원로들의 적극 권유에 따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광주시배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에 뛰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

하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 시절, 상임부회장을 지냈던 전 회장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는 장애인배구인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장애인 선수들과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해 협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시도장애인 배구협회 구성, 1시도 1남녀 좌식배구팀 창단, 우수선수 발굴·육성, 심판 복지 향상, 스탠딩 발리볼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로 장애인 배구인 김모씨는 "권영진 회장님 당시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가장 활성화됐었다"면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전갑수 회장이 협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 주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 회장은 "장애인 배구인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어 출마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대한장애인배구협회가 제2의 전성기를 맞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 선거는 오는 10일 치러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시즌 첫승 불발

강경민 13골 분전 불구 서울시청에 28-29 아쉬운 역전패

시즌 첫승을 노리던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종료 10초를 건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은 지난 5일 충북 정주올림픽국민생활관에서 열린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서울시청과 경기에서 28-29로 패배했다. 주포 강경민이 13골, 김지현이 6골을 넣는 등 활약했으나 빛이 바랬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로써 시즌 전적 1무1패를 기록했다. 강경민, 김지현 쌍포의 꾸준한 활약과 조직력을 앞세워 탄탄한 팀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도시공사는 전반전을 14-11로 3점차 리드하며 시즌 첫 승에 한발 다가선 듯했다. 그러나 후반 슈팅이 잇따라 막히면서 동점을 허용했고, 경기 종료 10초 전 서울시청에 7m드루를 허용, 결승골을 내줬다.

득점 포문은 강경민이 열었다. 이어 서아루가 1골, 김지현이 연속 2골을 넣어 전반전 7분까지 4-0으로 경기를 리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전 서울시청에 연속 3골을 내주고 14-14로 동점을 허용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0분이 지나면서 서울시청에 24-27로 리드를 빼앗겼으나, 서울시청의 연이은 실책을 틈타 27-27 동점을 만들었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27분 서아루의 어시스트를 받은 최지혜가 골을 넣어 28-27로 역전에 성공했다.

승부는 경기 종료 1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갈렸다. 서울시청의 최수민의 득점으로 28-28 동점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후 공격권은 광주도시공사에게 주어졌다.



강경민

하지만 경기종료 11초를 남겨놓고 공격을 하던 광주도시공사에게 오버타임이 선언됐다. 때마침 강경민이 볼을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심판이 레드카드를 제시, 서울시청에 7m드루가 주어졌다. 서울시청 윤예진이 7m드루를 골로 연결해 승부가 났다.

광주도시공사는 7일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리그 우승후보인 부산시청과 1라운드 3차전 경기를 갖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5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자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서울 GS칼텍스 KIXX의 경기. 1세트 GS칼텍스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GS칼텍스에 막힌 여자배구 흥국생명 연승 신기록

2-3 역전패... 14연승서 마감

프로배구 역대 최다 연승은

남자부 현대캐피탈 '21연승'

출범 17시즌째를 맞이한 프로배구에도 좀처럼 깨기 어려울 것 같은 기록이 하나씩 나온다.

불멸의 기록 중 하나가 최다 연승 기록이다. 여자부 흥국생명은 5일 GS칼텍스에 첫 두 세트를 먼저 따내고도 내리 세 세트를 내줘 2-3으로 패했다. 지난 시즌 막판 4연승과 올 시즌 개막 10연승을 합쳐 14연승을 질주하던 흥국생명 승리 열차에 제동이 걸렸다.

흥국생명이 GS칼텍스를 눌렀다면 여자부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록을 보유한 GS칼텍스가 희생양이 되길 거부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기록 사이트를 보면, 여

자부 역대 통산 최다 연승 기록은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나란히 작성한 14연승이다.

흥국생명은 2019-2020시즌~2020-2021시즌 두 시즌에 걸쳐서, GS칼텍스는 2009-2010시즌에 각각 14연승을 달성했다.

GS칼텍스는 전체 시즌을 아우른 역대 통산 최다 연승에선 흥국생명에 공동 1위를 허용했지만, 단일 시즌 최다인 14연승 기록은 여전히 단독으로 보유 중이다.

'어우흥(여자부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안고 시즌을 시작한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11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했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선두를 달린다.

패배의 쓴잔을 들이킨 흥국생명이 다음 경기부터 다시 연승을 시작한다면 남은 19경기에서 GS칼텍스의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을 넘어 새로운 연승 기록의 이정표를 세울 수도 있다.

GS칼텍스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연재 '한 방

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을 뽐내고 분홍색 거미군단의 앞길을 막을 강력한 대항마로서 입지를 굳혔다. 두 팀의 라이벌전은 이번 시즌 흥행의 기록제 노릇을 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남자부 최다 연승 기록은 현대캐피탈의 전유물이다.

현대캐피탈은 2015-2016시즌~2016-2017시즌 두 시즌에 걸쳐 역대 남녀부 통산 최다인 21연승을 구가했다.

이 부문 2위 삼성화재의 17연승(2005-2006시즌~2006-2007시즌)보다도 훨씬 길어 당분간 넘어서기 어려운 기록으로 보인다.

현대캐피탈은 2015-2016시즌에는 18연승을 질주해 단일 시즌 최다 연승 기록도 작성했다.

현대캐피탈의 영원한 라이벌인 삼성화재는 역대 통산 홈 경기 최다 연승 기록인 18연승을 남겼다. 여자부 역대 통산 홈경기 최다 연승 기록은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이 보유한 12연승이다. /연합뉴스

'인간새' 넘은 뒤플랑티스, 올해의 육상선수

'인간새' 세르게이 부카(57·우크라이나)를 넘어선 남자 장대높이뛰기 '신성' 아르망 뒤플랑티스(21·스웨덴)가 2020년을 빛낸 육상 선수로 인정받았다.

세계육상연맹은 6일(한국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2020년 세계육상연맹 올해의 육상선수 시상식에서 남자부 최고 선수로 선정했다.

뒤플랑티스는 9월 18일 이탈리아 로마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장대높이뛰기 결선에서 6m 15를 넘었다.

부카가 1994년에 작성한 종전 기록 6m 14를 1

cm 뛰어넘은 세계 신기록이었다.

'인간새'로 불린 부카는 뒤플랑티스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전까지, 남자 장대높이뛰기 실외경기 세계 1~8위 기록을 독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뒤플랑티스가 26년 만에 세계 기록을 바꿔놓으며 부카의 기록은 2위로 밀렸다.

'세단뛰기 스타' 올리마르 로하스(25·베네수엘라)는 여자부 최고 선수로 뽑혔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2017년 런던-2019년 도하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챔피언에 오른 로하스는 올해 실내 여자 세단뛰기 세계 기록(15m 43)을 세웠다.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